경기산업, 목재펠릿 2만톤 공장 건설

경기도 포천에 목재펠릿 생산시설이 완공됐다.

경기도 포천시는 2만7천500㎡ 부지에 32억5000만원을 투입해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펠릿 생산시설을 2011년 10월 착공했으며 최근 준공했다고 2월20일 발표했다.

목재펠릿 생산시설은 경기산업이 경영하며, 폐목재와 산림 부산물 등을 활용해 1만7280톤을 생산해 산업용·가정용 에너지원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에서 압력을 가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이며,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경유의 1/12밖에 되지 않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중립 연료로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0>